

문화

영동 발랄한 '어라' 캐릭터로 젊은층 포교에 나서고 싶어요

카툰 전시회 연 만화가 지찬 스님

“수행자로서 세상에 회향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툰이란 함축적인 느낌을 담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또한 젊은층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장르이기도 하고요. 제 만화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 같은 소소한 기쁨을 주었으면 합니다.”

1월 7일 카툰전 '마음이 추울 때, 카툰이 카노 한잔 어때요?' 展을 개최하고 있는 종로구 삼청동 스페이스선+를 찾았다. 어라 지찬 스님이 배종훈 작가와 2인전으로 펼친 이 전시는 그동안 홈페이지나 인쇄물로 만나볼 수 있었던 스님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의 제목에는 카툰이 카노라는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카툰과 아메리카노의 준말이라고 한다. 카툰을 눈으로 마시라는 의미로 그만큼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는 전시란다. 역시나 스님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주며 차 한 잔을 대접한다.

“갤러리 앞의 쇼케이스 전시 작품을 보고 정말 커피를 파는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한 배종훈 작가의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에게 커피를 직접 내려 드렸더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고요. 만화 한 컷으로 또 전시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처럼 스님의 만화는 많은 이들에게 커피처럼 따뜻하고,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것이 젊은층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스님의 바람이다.

“만화 자체가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짧고 강렬하게 불교적 가치관을 알



지찬 스님은 어라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님은 1월 2일~7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카툰은 선과도 일맥상통하는 장르

동자승 어라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 주고자

연초 첫 전시회 마련해 호응 커

리는 데에는 카툰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작품을 본 젊은이들이 훗날 이를 추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대표 캐릭터는 어라다. 스님이 예명이기도 한 어라는 가사를 입은 동자승을 귀엽게 표현했다. 어라는 영동하고 깡직한 매력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책을 읽다 졸기도 하고 다양한 포즈로 스티커 사진을 찍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을 관찰하며 붓을 들기도 하는 캐릭터가 어라다.

“늘 사유하면서도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 많은 친구가 어라죠. 또한 어라는 세상의 모든 스님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저는 조계종 승려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가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가사를 입은 동자승을 통해 영동하고 좌중우돌하는 인

간적인 캐릭터로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고자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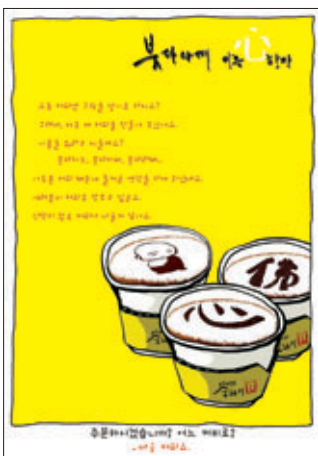
스님은 만화를 그리지만 어디까지나 수행자임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미안마에서 조기불교 수행을 하고 돌아온 스님은 자신의 수행 경험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스님이 만화를 그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저 제가 알고 느끼고 경험한 수행과 일상의 결과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더 간결한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찬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성관 스님을 은사로 수원사에서 출가했다.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만화창작과와 한국문화영상진흥원 '만화콘텐츠 디지털 제작 실무과정'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를 공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카툰을 연재한 바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월간 <불광>을 통해 지찬 스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hs@nyunbul.com



어라는 때로는 영동발랄하고 때로는 사유하는 모습으로 선적인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림 왼쪽은 '한 줄 충전', 오른쪽은 '붓다라떼 마음 심 한잔'



어라는 때로는 영동발랄하고 때로는 사유하는 모습으로 선적인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림 왼쪽은 '한 줄 충전', 오른쪽은 '붓다라떼 마음 심 한잔'

하룻밤 누대에 꿈도 푸르네

무한 감동의 천년고찰

태백준령을 뚫어 온 대간의 백박이 소백연봉으로 건너뛰는 봉황산. 그 신비로운 자락을 품고 앉은 부석사를 이롭게 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동 화엄사찰의 종가(宗家), 의상대사의 원력과 선묘 남자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창건설화, 배흘림기둥의 유려한 곡선으로 세워진 무량수전, 멀리 중생계를 굽어보는 안양루, 조사현의 벽화와 비선화 등등. 역사적 연인과 교리적 해석, 신앙적으로 심화된 가람의 배치, 그리고 멋진 풍경이 자아내는 무한한 감동이 부석사를 최고의 고찰로 만들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사찰이 그렇듯, 서기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무너진 법당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없던 당우가 들어섰다가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다. 시절연원을 따라 사역(寺域)이 변하는 것은 중생계의 자연스런 영교성쇠(榮枯盛衰). 최고(最古)의 목조건물로 꼽히는 무량수전(국보제18호)도 1358년 외적의 침입으로 불탄 것을 원은 국사가 1376년에 고쳐지었다고 하지 않는가?

풍경으로서의 부석사를 완성시키는 건물은 누가 뭐래도 안양루일 것이다. 아래쪽인 범종각 구역에서 아래서 올려다보면 창공으로 날아갈 듯하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보면 아슬아슬 소백연봉을 거느린 관음의 옷깃 같기도 한 안양루. 허공에 들어앉은 그 맑은 바람벽의 보각은 인간과 불보살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신비한 실루엣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시 속에 세워져 있는 취원루

그러나 부석사를 소재로 한 선비들의 많은 시 가운데 대부분은 안양루가 아닌 취원루(翠遠樓)를 읊고 있다. '부석사종각중수기' 등을 참조해 보면 안양루는 18세기 중엽에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849년에 편찬된 <순흥읍지>에는 무량수전 서쪽에 취원루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겸재 정선(謙齋 鄭敎 1676~1759)의 <고남명승첩>에 실린 부석사 그림에는 무량수전의 앞쪽에 안양루가 있고 그 왼쪽 석축 끝에 누각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그것이 취원루로 보인다. 그러니까 취원루는 옛 사람의 시 속에서 있는 부석사의 누각이다.

취원루두조막관(翠遠樓頭 幕寬) 아래추일빙간간(我來秋日 干) 거승지점분제국(居僧指點分諸國) 소도인간행로난(笑道人間行路難)

취원루 위에 비단장막 너럭한데 나는 가을날 찾아와 난간에 기대보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③ 주세봉과 부석사 ①



주세봉은 풍기군수로 재직 당시, 부석사 취원루에 하루 저녁 묵은 인연으로 한 수의 시를 지었다. 사진은 부석사 전경

거기 사는 스님은 분계국을 가리키면서 웃으며 인간세상살아가기 어렵다 말하네.

창창원기적동남(蒼蒼元氣積東南) 이백웅봉결구참(二白雄峰結構參) 산주곡지분종초(散走股肢紛紜) 전수한색의상암(全輸寒色義相庵)

창창원 원기가 동남쪽에 쌓였나니 소백 태백 웅장한 봉우리 들쭉날쭉함을 뒀네.

홀어져 팔다리로 내달려 여러 봉우리 어 지러운데 온전히 차가운 빛 의상암으로 보낸다오.

의상암외월여해(義相庵外月如海) 속객무면심퇴퇴(宿客無眠心磊磊) 이백소아해문지(李白小兒解問之) 거주욕극안재(舉酒欲呼今安在)

의상암 밖에 달빛은 바다 같은데 잠자리에 든 객은 잠들지 않고 마음 여유 없네.

이태백이 어린아이에게 물어 깨닫다니 잔 들고 불려보네 이태백은 지금 어디 있는가?

산루람월굴산취(山樓望月窟山聚) 일숙루중몽역청(一宿樓中夢亦靑) 조모웅관겸야경(朝暮雄觀兼夜景) 신시만주동정령(新詩滿袖動精靈)

산루에서 여러 산의 푸르름 움켜쥐니 하룻밤 자고 가는 누대에 꿈도 푸르네.

아침저녁 웅장한 경관에 야경까지 더하니 새로운 시 소메에 가득하여 정령이 움직이네.

-주세봉 '부석사 4수' <무릉잡고>3권 주세봉(周世鵬 1495~1554)의 시다. 주

세봉은 뱃속까지 성리학이 들어차서 유림의 거목이다. 그는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듬해(1544년) 우리나라 성리학의 선구자인 안향(安珦 1246~1306) 선생이 젊은 시절 공부했던 순흥에 백운동서원(오늘날의 소수서원 사적 제55호)을 세웠다. 백운동서원이라는 이름의 근원도 주자(朱子)가 여산에 세워 후학을 가르친 '백록동학규'이다. 주세봉의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서원인데, 퇴계 이황이 1550(명종 5)년 왕에게 진언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 받음으로써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는 타이틀을 더하게 되었다.

'역불승유'와 '불유교류'의 간격 아무튼 성리학자 주세봉의 문집에는 사찰을 묘사한 시와 교류하던 승려들을 위해 쓴 시가 상당히 전한다. 그의 시대는 분명 성리학의 물결이 출렁대는 때였고 그 역시 그 물결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견인차였다. 그럼에도 사찰을 자주 찾고 많은 승려와 교분을 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부석사 4수'에서도 그러한 향취가 충분히 풍겨져 나온다. 스님이 가리키는 '분계국'은 넓게 펼쳐진 경치를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중생계로 표현한 것이다. 주세봉은 그 중생계의 사람살아가 쉽지 않다는 스님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 잠자리에서조차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유언하다. 이 4수의 시에 동원된 풍경과 경물들, 그리고 의상과 이태백까지 불러내며 서정과 서사를 원용 시키는 솜씨가 대단하다. 그래서 후세 선비들이 이 시의 운을 빌어[次韻] 쓴 시가 많다.

59세를 살다간 그가 풍기군수로 재직 한 시기는 50세 전후. 그러니까 부석사 취원루에 하루저녁 묵은 인연만으로도 그 농익은 학자는 소매 가득 시를 품고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재 양성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언 (010-7925-4749)

C.A.C 분석사



- ◆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대학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천성명학 - 상원문화사

-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 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범거랑 해설

한국 禪의 총종조인 경허대사와 수월 · 만공 · 해월 · 한암 · 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wert 선지식 총서 ①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역음 | 46만 | 218쪽 | 11,000원



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wert 선지식 총서 ②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역음 | 46만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달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wert 선지식 총서 ③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역음 | 46만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자성을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범어집 이wert 선지식 총서 ④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역음 | 46만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